

'대부' 시리즈 코플라감독

2천만달러 배상금 받는다



코플라 감독

'대부' 시리즈의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감독이 워너 브러더스사로부터 2천만달러(약 2천7백억원)에 이르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심원단의 판결을 수용했다. 2천만달러의 배상금은 당초 코플라감독이

의해였다. 그러나 조건이 탐탁지 않자 이후 콜롬비아와 접촉을 가졌고 이에 워너 브러더스측이 '피노키오'의 영

코플라감독은 이탈리아의 작가 카를로 콜로디가 지은 '피노키오'의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조명, 나치 치하의 프

황덕준 특파원 할리우드 통신

"피노키오 제작 방해 창작의욕 꺾었다"

LA법원, 워너 브러더스사에 '지급령'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지난 7일(한국시간) 코플라감독이 제작을 추진했던 영화 '피노키오'와 관련한 소송에서 "워너 브러더스가 코플라감독의 창작의지를 꺾고 '피노키오'를 만들지 못하게 한

'피노키오'의 감독직은 물론 시나리오작업과 프로듀싱까지 맡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됐다고.

코플라감독은 지난 91년 워너 브러더스측과 어린이집부터 동경의 대상이었던 동화 '피노키오'를 비롯해 3편의 영화를 만드는 문제를 논

화권권을 주장하며 제작을 방해함에 따라 소송사태로까지 발전했다.

로스에서 스페인으로 피난간 일단의 고아들이 겪는 모험담을 영화화할 계획이었다.

아빠와 함께 영화를...

디카프리오 부자 공동 제작키로

'타이타닉'의 주역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버지와 새 영화를 제작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영화 감독인 조지 디카프리오가 그의 아버지, 이들이 만들 영화로는 아티칸 엔터테인먼트의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로 스탠퍼드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룬 예정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제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자가 함께 작업을 진행하는 흐트한 광경을 조만간 보기를 힘들 듯, 제작사측에 가까운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클 라자루가 쓴 이전의 시나리오가 곧 폐기처분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껏해야 올해 연말께나 가야 디카프리오 부자의 영화공동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니콜 키드먼 연극 데뷔

영국서 막을 'The Blue Room'

여배우 니콜 키드먼(사진)이 연극에 데뷔한다. 출연작은 영국 런던의 돈마 웨어하우스에서 막이 오를 'The Blue Room'. 극작가 아더 쉬넛홀러의 'La Ronde'를 현대화한 작품으로 샘 멘디스가 연출을 맡는다. 키드먼은 최근 샌드라 불럭과 'Practical Magic', 남편인 톰 크루즈와 'Eyes Wide Shut' 등 2편의 영화 촬영을 마쳤다.

윌 스미스 '와일드~' 출연

3연속 '홍행홈런' 대시

가수 겸 배우로 할리우드 연예가를 휩쓸고 있는 윌 스미스가 3연타석 홈런에 도전한다.

96년 '인디펜던스 데이'와 지난해 '맨 인 블랙'의 연속 히트로 배우로서도 상종가를 기록중인 윌 스미스의 3번째 영화출연작은 워

너 브러더스의 액션 코미디물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로 지난 65~70년 CBS의 TV시리즈물 '웨스트'를 각색한 것. 감독은 '맨 인 블랙'의 메가폰을 잡았던 베리 소넬펠트로 99년 미국독립기념일(7월4일)에 맞춰 개봉



윌 스미스

할 예정이다. 과연 베리소넬펠드-윌 스미스 콤비가 지난해 '맨 인 블랙'의 흥행 성공을 재현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할리우드는 주시하고 있다. <djhwang@seoul.co.kr>



전영호의

개그핀치

<40>

박세리!

이름 풀이 하면 존스타 아닌가? 그렇다면 골프의 여왕으로 등극한 박세리의 이름 풀이를 안하고 넘어갈수는 없는 일.

(박) 박수 받을 만하다. (세) 세계 골프계를. (리) 리드해 나가는 여왕이 되었으니...

후후 존스타의 이름 풀이가 요정도면 못자리 같 만하지 않냐는 야그다.

전 세계의 마스크들은 침이 튀도록 박세리를 극찬했다는 사실.

뭐라고? "글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girl)"이라고 말이다.



박세리의 골프 증계는 정반대 상황이다. 말씀. 결백맨: 여보 여보. 우리도 오늘은 18홀을 돌아야 될게 아뇨?

려요(소리버럭). 빌빌맨: 영? 응... 응녀: 아니 당신은 연장전만 시작되면 왜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골프여왕 등극 대한의 딸 이름풀이

● 박 박수 받을만하다

● 세 세계골프계를

● 리 리드해 나가는 여왕이 되었으니...

잘든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가족계획회의 표어가 있는데 이제 한국 데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

어떻게? 바로 요렇게... "잘든 딸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후후 감 빠른 피플들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야! 월드컵 축구팀, 하먼서 소리를 질러 댔을게다. 맞는 애기다.

월드컵 축구 증계맨 온 국민이 밤새우고 김새지만

색색녀: 박세리 하는거 봤지. 똑같이 해줘야돼.

결백맨: 어떻게? 색색녀: 연장전! 연장전! 끝까지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

결백맨: 꼬악~. 꼬악소리 날만도 하지. 요리코를 점통터위에 연장전이라니? 진짜 사람 죽일 일 있는 거냐 야그다.

연장전(?)만 치르게 되면 눈꺼풀을 스스로 내리고 코를 고는 어떤 빌빌맨을 등장시킨다.

왜? 존스타 맘이니까.

빌빌맨: (눈감고) 드르릉

응녀: 이거봐요. 정신 차

편집 이경석기자
ksi@seoul.co.kr



<중경삼림> <동사서록>

양조위

<돼지가 우물에 빠진날> <아망의 전설>

죽은숙

지옥 끝에서도 난 그녀를 지킨다!

영웅본색, 천의음, 장을 있는 홍콩영화의 대작! 클리프 브라운!

초시공애

<천여지> <비룡>의 여대위 감독 <태극권> <신조혈>의 무술감독 원규

梁朝偉 梁朝偉/李綺紅 劉以達/林尚義 鍾楚紅/李修賢 劉以達 梁朝偉 梁朝偉/李綺紅 劉以達/林尚義 鍾楚紅/李修賢 劉以達

ARL DENHEM WEALTH HOLDINGS LTD. 수입, 배급 한국영상투자개발(주)

롯데월드 3.4

티파니

시네마 천국

곧 개봉!!

명보

수원/중앙 수원/아카데미 수원/대한 수원/단오 인천/인형 부평/대한 안양/뉴월드 안양/안양 성남/중앙 성남/파카디리 의정부/의정부 부천/소사 부천/영시네마 원주/아카데미 춘천/육림 강릉/중앙 안산/대한 평택/중앙